ISSN 1975-6178 (Print)
ISSN 2733-9904 (Online)
『어문논총』 제43호. 2023년 8월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omunnonchong* Vol 43. Aug. 2023
http://doi.org/10.24227/jkll.2023.8.43.47

『경셩유록』에 나타난 강릉방언 모음의 음운론적 특징

이래호*

- 목 차 -

Ⅰ. 서론
Ⅱ. 강릉 방언 모음의 음운론적 특징
1. 전설모음화
2. 고모음화
3. 저모음화
4. 단모음화와 이중모음화
5. 모음조화
Ⅲ.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10년 전후에 작성된 『경셩유록』을 통해 당시 강릉 방언 모음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 강릉 방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데 있다. 『경셩유록』은 강릉에 거주하던 강릉김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부교수

씨가 1913년 9월 이후에 쓴 「셔유록」과 강릉김씨 아들이 1906년 1월 정도에 쓴 「황셩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사본으로, 그 당시 강릉의 언어를 살피는 데 적절한 자료이다. 그 당시의 강릉 방언을 살피기 위해 전설모음화, 고모음화, 저모음화, 단모음화와 이중모음화, 모음조화 등을 살펴보았다. 움라우트와 관련이 없는 '으>이' 전설모음화, '어>으'와 '에>이'의 고모음화, 치경음 아래에서의 '으>어' 저모음화는 현대 강릉방언과 같으나, 모음조화, '오>우' 고모음화, 단모음화, 이중모음화 등에서 현대 강릉방언과 차이가 있다.

주제어 : 경성유록, 강릉방언, 모음, 음운론적 특징

Ⅰ. 서론

본 연구는 1910년 전후에 작성된 『경셩유록』을 통해 당시 강릉 방언 모음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 강릉 방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셩유록』은 강릉시 장현마을에 사는 강릉 김씨가 1913년 8월 강릉을 출발해서 서울을 여행하고 9월 8일 강릉으로 돌아와서 쓴 기행록인 「셔유록」과 아들이 병환 중인 어머니를 위해 읽어 주기 위해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기사 몇 건을 번역한 「황셩신문」을 1915년에 합본하여 개장한 자료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박미현(2008: 181)에 따르면, 「셔유록」의 저자인 강릉 김씨는 1862년 6월 15일 강릉 모산마을에서 태어나 인근 장현 마을 강릉 최씨 최동길(崔東吉)과

결혼해 그곳에서 살았으며, 80세에 여생을 마쳤다. 『경셩유록』은 생애 전 기간 동안 강릉에 거주한 강릉김씨와 그의 아들이 쓴 글을 모아 놓은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필사 당시 강릉의 언어를 살피는 데 적절한 자료이다.

강릉 김씨는 서울 여행을 하면서 노정기를 적었는데 "노정기에 적을 말들이 많이 빠졌기에 다시 기록하여 '셔유록'이라 이름하였다"고 기록하여 놓았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강릉 김씨는 서울 여행이 끝난 1913년 9월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셔유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셩신문」의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아들이 직접 쓴 필사기 "을ᄉᆞ연에 ᄌᆞ당게셔 병환 즁 계시미 시병 즁 황셩신문을 번역ᄒᆞ여 자당 옵헤 일거 파젹ᄒᆞᆫ 거시라"를 고려하고, 「황셩신문」에 있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기사가 190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황셩신문」은 1906년 1월 정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셔유록」은 1913년 9월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황셩신문」은 1906년 1월 정도에 작성되었고, 이 둘을 묶어 『경셩유록』이라는 이름으로 1915년 1월에 개장되었다. 본고에서는 이후 『경셩유록』 즉, 「셔유록」과 「황셩신문」의 작성 시기를 합하여 이를 때 1910년 전후로 약칭한다.[1)]

현대 강릉 방언의 모음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익섭(1972, 1981)에서 연구된 바 있다. 이익섭(1972)에서는 강릉 방언 종결어미 {-아/어}의 교체의 분포 조건을 기술하였는데 이 연구는 주로 모음조화와 관련이 있었다. 이익섭(1981)에서는 {-아/어}와 관련된 모음의 범위를 넓혀 연결어미, 종결어미, 선어말 어미 등의 교체 양상을 정밀하게 다루었다. 이후 김봉국(2001)에서는 강릉과 삼척 방언 현지 조사를 통해 '-어/-아'계 어미의 교체 양상을 살폈다. 이 연구에서는 용언을 규칙 활용의 경우와 불

1) '1910년 전후'라 하면 일반적으로 1910년 ± 1, 2년 정도로 이해하는데,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1906년부터 1913년 말 정도를 뜻한다.

규칙 활용의 경우로 나누어 다양한 환경에서 '-어/-아'계 어미 교체 양상을 다루어 강릉 방언과 삼척 방언의 차이를 밝혔다. 최근 강릉 방언의 다양한 모음 실현 양상을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로는 김옥영(2012)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어와 강릉방언을 '아-애', '어-으', '위-우', '으-어' 등과 같이 19개의 대응 관계로 분류하고, 19개의 대응 관계를 '후설모음:전설모음', '전설모음:후설모음', '고모음:저모음', '저모음:고모음'의 대응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강릉 방언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대응 관계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모음 실현의 내적 원리를 모음체계 내 대립 관계의 변화와 유지에서 찾은 점은 지금까지 강릉 방언의 모음에 대한 연구와 구별되는 점이다.

20세기 초반의 강릉 방언의 모습에 대한 연구는 김봉국(2012)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경셩유록』 내에 있는 「셔유록」만을 대상으로 자음군단순화와 경음화, 모음조화, 유음 탈락, 전설모음화, 모음상승화를 논의하였고, 더 나아가 문법형태와 관련하여 어미 '-더, -더가', 속격조사 '-어', 주격조사 중가 현상을 논의하였다. 김봉국(2012)의 논의에서는 「셔유록」에 나타나는 방언의 특징이 현대 강릉 방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셔유록」에 나타난 강릉 방언이 현대 강릉 방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경셩유록』을 구성하고 있는 「황셩신문」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가 좀 더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김봉국(2012)의 논의를 발전시켜 『경셩유록』에 나타나는 모음음운론적 특징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경셩유록』에 나타나는 모음 음운론적 특징이 현대 강릉 방언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2)]

2) 본고는 김봉국(2012), 김옥영(2012)에 힘입은 바 크다.

Ⅱ. 강릉 방언 모음의 음운론적 특징

1. 전설모음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설모음화는 치경음 자음인 'ㅅ, ㅆ'와 경구개음 자음인 'ㅈ, ㅊ, ㅉ'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되는 현상과 'ㅏ', 'ㅓ', 'ㅗ'가 각각 'ㅢ/ㅐ', 'ㅔ', 'ㅚ'로 되는 현상을 이른다.

『경셩유록』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전자에 대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고유어: 가심이 억식ᄒᆞᆫ<2a>, 실푸도다<11b>, 일필휘지 씨ᄂᆞᆫ 모양<17a>, 씨어 노은 글지<17a>, 무어셰 실 ᄯᅥ 잇깃소<53b>, 긱회난 씨러지나<14a>, 그 죠약을 다시 씨라 ᄒᆞᆫ디<44a>

나. 십ᄌᆞ(習字) 아니ᄒᆞ오릿가<16b>, 련십(鍊習)ᄒᆞ고<51b>

다. 인가가 질비ᄒᆞ니<8a>, 인가도 질비ᄒᆞᆫ디<12a>, 양옥집이 질비ᄒᆞ여<21a>

라. 왓실<42a>, 페지ᄒᆞ엿시나<3b>, 날이 되엿시니<10b>, 바다나 ᄃᆞ름업실노다<11a>, 노독인들 읍실손가<13b>, 육조을 세웟시니<18a>, 놉피 잇시니<31a> 등

마. 싱각ᄒᆞ고 트러안지면<32b>, 올나 안지니<13b>, <30a>, 올너 안지면<11a>

(1가)는 고유어 형태소 내부 환경의 'ㅅ'과 'ㅆ' 다음에서, (1나)는 한자어의 'ㅅ' 다음에서, (1다)는 한자어의 'ㅈ' 다음에서 'ㅡ'가 'ㅣ'로 된 예들이며, (1라)는 형태소 경계의 'ㅅ' 다음에서, (1마)는 형태소 경계의 'ㅈ' 다음에서 'ㅡ'가 'ㅣ'가 된 예들이다. 이들 모두 치경음과 경구개음 아래

에서 ‘으’가 ‘이’로 변한 것이므로 전설모음화로 볼 수 있다. 김봉국(2012: 205)에서 이와 같은 전설모음화가 현재 강릉지역어에서도 형태소 경계는 물론 형태소 내부에서도 치경구개음인 ‘ㅅ, ㅆ, ㅈ’ 아래에서 전설모음화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셩유록』에서 전설모음화는 (1가)와 (1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 관계없이 주로 ‘ㅅ’이나 ‘ㅆ’ 다음에서 일어나고 ‘ㅈ’ 다음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1다)의 ‘즐비하다’의 어휘에서만 일어나며 형태소 경계에서는 (1마)와 같이 ‘앉다’에 ‘-으면’, ‘-으니’가 결합할 때만 나타난다. 형태소 경계의 ‘ㅈ’ 다음에서 전설모음화의 예가 드문 이유로 (1마)의 ‘앉-’과 같이 어간말이 ‘ㅈ’인 경우나 어간말의 겹자음이 ‘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2)와 같이 형태소 내부의 ‘ㅈ’ 다음에서는 전설모음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ㅊ’[3]이나 ‘ㅉ’인 경우에도 전설모음화가 보이지 않는다.

(2) 가. 어즈러워 엇더타 말 못ᄒᆞ깃더라<20b>
나. 지ᄒᆞ의 가셔 감복ᄒᆞ고 즐거워 홀리ᄅᆞ ᄒᆞ고<50b>

(2가)의 ‘어즈럽다’는 현재 강릉방언에서 ‘어지럽다’[4]의 형태로 나타나며, (2나)의 ‘즐겁다’도 ‘질겁다’[5]로 나타나는데, 『경셩유록』에서는 ‘즈’, ‘즐’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1다)와 (1마)의 ‘질비하다’, ‘안지면’, ‘안지니’는 왜 전설모음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3) ‘ㅊ’인 경우 ‘아침’<14a>의 예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어휘는 18세기부터 ‘아침’의 형태로 나타났다. ᄉᆞ별 긔약 업서 아침의 우홈터니<전설곡, 슈션곡(1796), 1a>.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아츰’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이 자료의 ‘아침’이 ‘아츰’의 전설모음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4) ‘어즈럽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19세기 전설모음화에 의해 ‘어지럽다’로 나타난다.
5) 김옥영(2012: 15) 참조.

현대 강릉방언에서 ‘드리다’가 ‘디리다’로 ‘다듬이’이 ‘다딤이’, ‘그냥’이 ‘기냥’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설모음화의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으’가 ‘이’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들은 음운론적으로 후행하는 모음 ‘이’의 영향으로 ‘으’가 전설모음 ‘이’로 실현된 것이다.[6] ‘즐비하다’[7]는 후행하는 모음이 ‘이’이다. 곧 ‘질비하다’는 후행하는 모음 ‘이’의 영향으로 ‘즐’의 ‘으’가 ‘이’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가), (1나)를 비롯하여 (1라)의 경우는 ‘으’에 선행하는 자음의 영향으로 ‘이’로 전설모음화된 것이지만, ‘질비하다’, ‘안지면’ 등의 예는 후행하는 모음에 영향을 받아 전설모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셩유록』이 작성된 1910년 전후 시기에 ‘ㅈ’, ‘ㅊ’음의 영향으로 ‘으’가 ‘이’로 되는 전설모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가? 다음 예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3) 가. 즉분(職分)을 다 할 ᄯᆞ름니라<50a>, 면관니론 거슨 파즉(罷職)ᄒᆞ는 거시ᄅᆞ<45a>, 승지 증즉(贈職)을 쥬시고 <52a>

나. 층찬(稱讚)ᄒᆞ엿더라<47b>, 층찬ᄒᆞ여<51a>

(3)의 예들은 ‘ㅈ’, ‘ㅊ’ 뒤에서 전설모음 ‘이’가 후설모음 ‘으’로 변한 것이다. 『경셩유록』에서 이러한 변화는 ‘ㅈ’, ‘ㅊ’ 다음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설모음화와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전설모음화 과도교정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교정은 그 음운현상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에 일어나므로 (3)을 통해 이 시기 ‘ㅈ’이나 ‘ㅊ’ 뒤에서 ‘으’가 ‘이’로 되는 전설모음화가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셩유록>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전설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6) 김옥영(2012: 15)에서는 이들을 ‘후행 모음 ‘i, j’로 인한 움라우트’로 보았다.
7) ‘즐비하다’가 국어사 자료에서 ‘질비하다’로 나타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은 표기자의 의식을 원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곧, 전설모음화는 'ㅅ, ㅆ, ㅈ, ㅊ, (ㅉ/ㅆ)'에서 활발히 일어났고 당시 강릉 방언에서는 'ㅅ, ㅆ'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에 대해서는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거부감이 없었지만, 'ㅈ, ㅊ' 등에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설모음화에 대해서는 표기에 반영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설모음화의 또 다른 경우로는 '어', 'ㅇ', '오' 등이 '에', '애/이, 외'로 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설모음화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움라우트에 의한 전설모음화이고 다른 하나는 움라우트와 관련이 없는 전설모음화이다.

먼저 움라우트에 의한 전설모음화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도로혀 체량ᄒᆞ다<18a>
나. 어셔 구경덜 ᄒᆞ고 졍신덜 치리시오<33a>
다. 여러 가지 치려로<16a>, ᄉᆞ졍젼 연싱젼 경영젼 홈원젼 교ᄐᆡ젼 치려로 구경ᄒᆞ니<18b>
라. 약을 쩌려 복약ᄒᆞᆫ들, 약 세 첩 쩌려 먹고<15a
마. 그 봉 우에서 만과을 뵈키여 일홈을 으덧다 ᄒᆞ나 놉고<4b>, 기이ᄒᆞᆫ 손이 뵈이거ᄂᆞᆯ<12a>, 이쳔만 동포을 뵈니노라.<55a>

(4가)의 '체량ᄒᆞ다', (4나)의 '치려', (4다)의 '치려', (4라)의 '쩌려'[8], (4마)의 '뵈이거ᄂᆞᆯ'은 각각 중앙어의 '처량하-', '차리-', '차례', '달이-', '보이-'에 대응된다. 이들은 후행하는 모음 'ㅣ' 또는 반모음 'y'에 의해 (4가)는 후설모음 '어'가 '에'로 (4나)~(4라)는 역시 후설모음 'ㅇ/아[9]'가

8) '쩌려'의 '쩌리-'는 '달-[煎]이 강릉방언에서 어두 경음화를 경험한 '딸-'에 사동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 '따리-'가 형성되어 이에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태이다.
9) 'ㅇ'와 '아'는 다른 발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ㅇ'는 '아'의 이표기 정도로 추정된다.

‘익’로, (4마)는 ‘오’가 ‘외’로 바뀌었다. (4가)~(4다)는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의 예라면 (4라)~(4마)는 사동접사 ‘-이-’와 ‘-키-’, 피동접사 ‘-이-’의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의 예이다. 또한 개재자음과 관련하여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는 개재자음이 ‘ㄹ’인 반면 형태소 경계에서는 개재자음이 ‘ㅋ’이거나 ‘뵈이-’처럼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10] 현대 강릉방언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움라우트가 활발하게 나타나며, 개재자음이 변자음뿐만 아니라 중자음 ‘ㄹ’에서도 활발히 나타난다.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는 주로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 앞에서만 나타나며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 파생접미사 ‘-이’, 명사형 어미 ‘-기’ 등이 결합했을 때는 움라우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대 강릉 방언의 움라우트 모습은 『경셩유록』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경셩유록』에서는 움라우트가 일어나는 예들은 그리 흔한 편이 아니다. 몇 개의 예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 중 형태소 내부에서는 개재자음이 ‘ㄹ’일 때만 나타나고 피동화주가 ‘어’일 때는 (4가)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으며 양성모음 ‘ㅇ/아’와 ‘오’일 때 움라우트가 ‘어’보다 조금 더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형태소 경계에서는 조사나 어미 ‘-기’가 결합에서 움라우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대 강릉 방언과 동일하다.

다음은 움라우트와 관계없는 전설모음화의 예이다.

(5) 가. 일낙원 얼는 지<u>닌</u> 모로지 너머 갈시<5a>

---

10) 움라우트 개재자음과 관련하여서는 논의가 다양하다. 김완진(1963: 77)에서는 ‘ㅈ, ㅉ, ㅊ, ㅅ, ㄹ, ㄴ’ 등 중자음이 움라우트 현상을 방해한다고 보았고, 최명옥(1974: 63-64)에서는 ‘ㅈ, ㅊ, ㄴ, ㅅ, ㄹ’ 등 [+coronal] 자질의 자음이 개재할 때는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신애(2016: 267)에 따르면 중부방언에서는 개재자음 없이도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고, ‘ㄷ, ㄹ, ㄴ, ㅅ, ㅈ, ㅊ’과 같은 중자음을 개재하고 도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곧 방언에 따라 개재자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특정 방언에서는 개재자음 제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글지 ᄉᆞ오지<39b>, 학교에 단이면서 여간 글지 비우ᄌᆞ니 <15b>, 그 집 임지[11] 무러보니<13a>

다. ᄒᆞ시더릐도<44b>, 잇더릐도<45b>

라. 회복ᄒᆞ게 ᄒᆞ기을 바릐노ᄅᆞ<49b>, 셔편을 바릐보니 <12a>

마. 칙ᄒᆞᆫ 힝실 비우난 것ᄉᆞᆫ<16b>

바. 아마도 ᄉᆞ관을 그릇 맛닉도다<14a>, 동무 만닉 야기 중단 ᄒᆞ난 말이<15b>

사. 즁잉정부를 셰우고<1a>, 사립ᄒᆞ교난 즁잉ᄒᆞ교니<27a>

아. 이 지 넘에 왕닉ᄒᆞᄌᆞ면<5a>, 남디문 졍게중에 가 보니<37a>

(5가)의 '지닉', (5나)의 '글지', '임지', (5다)의 '-더릐도', (5라)의 '바릐-', (5마)의 '칙ᄒᆞᆫ', (5바)의 '맛닉도다', (5사)의 '즁잉', (5아)의 '넘에', '졍게중'은 각각 중앙어의 '지나-', '글자', '임자', '-더라도', '바라-', '착하-', '만나-', '중앙(中央)', '너머', '정거장(停車場)'에 대응된다. 이들은 (5가)~(5사)는 'ᄋᆞ/아>이'의 변화를, (5아)는 '어>에'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들은 후행하는 움라우트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동화주 없이 일어나는 'ᄋᆞ/아>이', '어>에'의 전설모음화이다. 이러한 전설모음화는 첫 번째 음절에서도 나타나지만 후행 음절이 없는 마지막 음절에서도 나타난다. 움라우트에 의한 전설모음화가 대부분 피동화주가 'ᄋᆞ/아'일 때 더 많이 나타났듯이 (5)와 같은 전설모음화에서도 대부분 'ᄋᆞ/아>이'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에'의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 곧 1910년 전후의 강릉방언에서는 움라우트보다 움라우트와 관련이 없는 전설모음화가 더 많은 어휘에서 더 빈번히 나타났으며[12] 그 가운데서도 'ᄋᆞ/아>이'는 가장 주도

11) 이곳의 '임지'를 '임ᄌᆞ+ㅣ(주격조사)'로 분석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후행하는 '무러보니'를 고려하면 '임지'는 목적어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임ᄌᆞ+ㅣ'로 분석하기 어렵다.

12) 이러한 '아>애'의 변화는 강릉방언뿐만 아니라 강원도 방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방언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적인 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고모음화

많은 방언에서 중모음이나 저모음이 고모음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있는데, 강릉방언을 반영한 『경셩유록』에서도 중모음이나 저모음이 고모음으로 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 중모음이 고모음화되는 현상들은 '어'가 '으'로 나타나는 현상 외에도 '에'가 '이'로 '오'가 '우'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존재한다. 먼저 '어'가 '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가. 먼길 출립이 본니 읍기로<4a>, 조반 후에 구경 ᄎᆞ로 츕 나셔셔<17b>, 손즁에 ᄎᆞ음 보난 번화지라<4b>, 뒤 니물을 근니셔셔<2b>, 흡ᄒᆞᆫ 땅에<3a>, 으른<11b>, ᄒᆞ낫도 그집부리 읍소<33a>, 혹ᄉᆞᆫ 가넌 인편 으더<17b>

나. 부릅도다<17a>, 밤과 낫지 분명ᄒᆞᆫ 근<32b>, 몸을 ᄯᆞᆯ치고 이러ᄂᆞ 간니<47a>, 군ᄉᆞ 슈십명니 붓들어 ᄌᆞ의 진즁의 가두엇더가 시골<49b>

(6가)는 각각 '없-', '첨', '처음', '건니-', '험ᄒᆞ-', '거집부리'의 '어'가, (6나)는 '부럽-', '건', '떨-', '저'(재귀대명사), '얻-'의 '어'가 '으'로 고모음화된 경우이다. 이러한 고모음화는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곽충구(2003:77-78)에서는 이러한 고모음화가 주로 장음에서 일어난다고 한 바 있다. 『경셩유록』을 통해서 본 1910년 전후의 강릉 방언에서는 장음뿐만 아니라 단음에서도 '어'가 '으'로 변하는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 (6가)는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이 현대

국어에서 장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이고, (6나)는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이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이다. 또한 첫 번째 음절뿐만 아니라 '부릅도다'와 같이 두 번째 음절에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강릉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옥영(2012: 24)에 따르면 '거저-그저', '엄청-음청'과 같이 단모음과 '호젓하다-호즛하다', '대:접하다-대즙하다'와 같이 두 번째 음절에서도 고모음화가 실현된다.[14] 이러한 단음에서 일어나는 고모음화는 1910년 전후에도 활발히 일어났고, 그것이 현대 강릉 방언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설모음 '에'가 '이'로 고모음화가 되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7) 가. 덕수궁에 기신<12b>

나. 목니 미혀<50a>

다. 쳔승에 빌과 갓고<25b>

라. 사는 기 올흔야 죽는 기 올흔야<40b>

마. 가군과 홈기 발정ᄒᆞ여<33b

(7가)의 '기신'은 '계시-'와 '게시-'의 '계/게'가[15] '기'로 (7나)는 '메혀'의 '메'가 '미'로 고모음화된 것이고, (7다)는 '빌'은 '별>벨'의 과정을 거쳐 고모음화된 것이다. (7라)는 '것이'의 축약형 '게'가 '기'로, (7마)는 '홈게'의 '게'가 '기'로 고모음화된 것이다. (7가)~(7다)는 현대국어뿐만 아니라 강릉방언에서 장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이고, (7라)와 (7마)는 단음으

13) 김봉국(2012: 206)에서는 (6가)와 같은 예에 대해 표기상의 제약으로 인해 장모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방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모음상승은 장모음의 환경에서 일어난 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4) 반면 정원수(1993:17-18)에서는 현대 영동 지역 방언에서도 고모음화가 활발히 나타나는데, 장음 '어'와 '에'에서 각각 '으'와 '이'로 각각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15) '계시-'의 예는 '일병니 무슈히 입궐ᄒᆞ여 황샹 계신 슈옥헌 셤들 지쳑에'<43b>, '게시-'의 예는 '이 궁궐에 게시던'<19a>의 예를 들 수 있다.

로 실현되는 예들이다. 특히 (7마)는 2음절에서 실현되었다. 곧 1910년 전후 강릉방언에서의 '에'가 '이'로 나타나는 고모음화 역시 (6)과 마찬가지로 장음과 단음에 관계없이 실현되며 제2음절 이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옥영(2012: 26)에 따르면 현대 강릉방언에서 '게:-기', '메:기-미기'처럼 장음에서도 고모음화가 실현되지만, '메뚜기-미뚜기', '제자리-지자리', '추레하다-추리하다', '억세다-억시다'처럼 단음과 두 번째 음절 이상에서도 고모음화가 실현된다. 이러한 고모음화는 1910년 전후의 강릉방언과 현대 강릉방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셩유록』에 나타나는 '오>우' 고모음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8) 가. 편ᄒᆞᆫ 나리 ᄆᆡ양 즈게 그날 밤 자구 나니<22b>, 분ᄒᆞ구도 밧부도다<30a>, 너러갈 길 흠ᄒᆞ구도 지리ᄒᆞ다 문지와 다름<7b>, ᄌᆞ구 가ᄌᆞ 청구ᄒᆞ니 양식<8b>, 그리난 볍 묘ᄒᆞ구도 신기ᄒᆞ오<16b>, ᄉᆞ람으로 영웅ᄉᆞ업 ᄒᆞ구 보면<24a>, 부룹구도 붓그럽데 어셔 즘을<37a>

나. 효흠도 읍다구 말홀<32a>

(8가)는 연결어미 '-고'가 (8나)는 조사 '고'가 모두 '구'로 고모음화된 예이다. 김옥영(201: 25)에서 '오'가 '우'로 고모음화되는 예도 강릉방언에서 문법 범주나 인접음 그리고 음절 위치나 음장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셩유록』에서는 어휘에서 나타나는 예는 보이지 않고 주로 연결어미 '-고'와 조사 '고'에서만 '구'로 고모음화가 나타난다. 이는 이 당시 강릉방언에서 '오>우'의 고모음화는 주로 문법 형태소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나타났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드물지만 중모음 '오'가 고모음 '으'로 상승된 경우도 발견된다.

(9) 가. 모드 ᄃᆡ신니 혹 ᄀᆞᄒᆞ다<46b>

나. 싱중ᄒᆞ여 늘드록 셔울 구경 ᄒᆞᆫ 슌 못 ᄒᆞ고<1b>

(9가)의 부사 '모드'와 (9나)의 연결어미 '-드록'은 『경셩유록』에서 모두 '모도'와 '-도록'으로 나타나는 것[16]으로 보아 이들은 중모음 '오'가 고모음 '으'로 상승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현대 강릉방언에서 찾기 어려운 모음의 상승이다. 선행 음절의 모음이나 후행 음절의 모음이 모두 원순모음 '오'인 것을 보면 (9)의 어휘들에서 나타나는 모음 상승은 이화 작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저모음화

『경셩유록』에서는 드물지만 고모음이 중모음으로 바뀌는 예들도 나타난다. 이들도 아래의 모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저모음화로 설명하기로 한다.

(10) 가. 져셩인지 인간인지<21a>, 부친 무럽 우에<28b>, 평싱 보지 못ᄒᆞ던 김셩 일홈인들 다<21b>

나. ᄉᆞ름덜니<48b>, 졔인덜니<47b>, 구경ᄒᆞ넌 남녀더른<13a>

다. 붓거러옴을<49b>

(10가)는 체언에서 고모음 '으'가 '어' 또는 '여'로 나타나는 예이고,

16) '모도'의 예는 '이것 져것 모도 보니'<19a>, 여러 가지 치소을 모도 심엇씨니<19a> 등이 있고, '-도록'은 '심회 푸리도록 걱졍이오'<14b>, '집 써난 지 다리 되도록 구경ᄒᆞ노라'<34a>, '오리도록 실난ᄒᆞ더가'<43a> 등이 있다. 『경셩유록』에서는 (8)의 예를 제외하고 모두 '모도'와 '-도록'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형태는 중세국어에서부터 볼 수 있다. 예: 져므도록 詰難ᄒᆞ시고<석보상절(1447) 3, 34a>, 諸法을 모도 드러 니ᄅᆞ샤<능엄경언해(1461)2, 49a>.

(10나)는 접미사 '들'에서 '으'가 '어'로 나타나는 예들이다.[17] (10다)는 용언에서 '으'가 '어'로 나타난 예이다. (10가)의 '져셩'과 '김셩'은 '성'이 '셩'으로 표기된 것인데, 이 자료에서는 '서'나 '성' 등이 모두 '셔', '셩'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ㅅ'이 구개음으로 발음되고 이에 따라 '어'가 '여'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셩'와 '성'은 발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져셩', '김셩'은 '으'가 '어'로 고모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강릉방언에서는 이러한 '으>어' 저모음화는 주로 2음절 이상에서 치경음 뒤에서 나타나는데[18] 이러한 치경음 다음의 '으>어' 저모음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10다)에서는 연구개음 'ㄱ' 다음에서 '으'가 '어'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910년 전후의 강릉방언의 '으>어' 저모음화 환경이 현대 강릉 방언으로 오면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19]

4. 단모음화와 이중모음화

현대 강릉방언에서 다음과 같은 '여'가 단모음 '에'로 나타나는 예들이 다수 나타난다.

(11) 가. 메느리(며느리), 게루다(겨루다)
나. 가멘(가면), 구게(구겨), 살페(살펴)<김옥영 2012: 7, 각주 2)에서 재인용>

---

17) '황샹 계신 슈옥헌 셤들 지쳑에 중중히 에워싼니<43b>'에서 '들'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근대국어의 'ᄃᆞᆯ'이 강릉방언에서 '들'로 나타났다가 저모음화에 의해 '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그 예로 '아들-아덜', '보습-보섭', '짐승-짐성', '심부름-심부럼'(김옥영 2012: 33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19) 강릉 방언에서 연구개음 다음은 아니지만 '흠집-험집'(김옥영 2012: 33 참조)처럼 후음 다음에 '으'가 '어'로 나타나는 예를 볼 수 있다. 현대 강릉방언에서 연구개음 다음의 '으'가 '어'로 나타나는 예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들은 '여'가 '에'로 변화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1가)에서는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에서도 나타나고 (11나)에서는 용언의 형태소 경계에서도 '여'가 '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선행 음운이 'ㅁ', 'ㄱ', 'ㅍ' 등으로 '여>에'의 변화 환경은 변자음 아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10년 전후의 『경셩유록』에서는 이러한 '여>에'의 변화가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12) 일용ᄉᆞ물 멧만 가지 수 안니면<16b>, 멧멧친고<5a>, 멧날 멧칠<7a>, ᄲᅩ루ᄃᆡ난 메 빅 치인지 수가 읍시<29a>, 우리나라 메 천만 동포에 일천만은 녀ᄌᆞ인ᄃᆡ<32b>

『경셩유록』에서 '여>에'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는 (12)가 전부이며, 어휘 '몇'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12)의 한정된 예를 중심으로 본다면 1910년 전후의 강릉방언에서는 '여>에'의 단모음화는 양순음 특히 'ㅁ' 다음에서만 나타나고 특정 어휘에서만 나타나는 한정된 음운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의 (7다)에서 본 '빌'은 '별>벨'의 과정을 거쳐 고모음화된 것이므로 'ㅂ' 다음에서도 '여>에'의 변화를 상정해 볼 수 있다.[20] 이후 강릉방언에서 '여>에'의 변화가 양순음 이외에 (11)과 같이 연구개음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경셩유록』에서 '여>에'의 변화와 다르게 '여>어'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 드물게 보이기도 한다.

(13) 가. 그 집제도 살펴보니 굉장ᄒᆞ고 놀납도다<18a>

20) (12)의 '멧'이 '별'과 같이 '몇>멧>밋'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예가 나타나지 않고, 현대 강릉 방언에서도 '밋'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명연 싱활 정도 어러온 집 불숭ᄒᆞ다<34b>, 그도 알기 얼럽고 ᄯᅩ 지화 후<39b>, ᄉᆞ오지식 된니 알기 어럽고<39b>

(13)에서는 양순음 'ㅍ'과 치경음 'ㄹ' 다음에서 '여'가 '어'로 변화한 모습을 보인다.[21] (13가)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것이며 (13나)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형태소 내부나 경계에 관계없이 '여>어'의 변화를 볼 수 있지만, 제한된 어휘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12), (13)과는 다르게 단모음이 이중모음화가 되는 경우도 보인다.

(14) 가. 언어 별절 힝동거지 외양조ᄎᆞ 요됴ᄒᆞ다<17a>, 관립 사별ᄒᆞ교 고등ᄒᆞ교난<27a>, 용도 갓고 별도 갓치 활동ᄒᆞ여<23b>

나. 변통 읍시 그리난 별 묘ᄒᆞ구도 신기ᄒᆞ오<16b>, 장갑 등물 ᄯᅳ난 방별 빅워 두면<17a>

다. 그릇된 쥬을 알고 슬펴ᄒᆞ여<46b>, 모부인니 죠곰도 슬펴ᄒᆞᆫ난 긔식니 업고<50a>

(14)는 '어>여'의 변화로, 반모음 y가 첨가된 이중모음화를 보여준다. (12)에서는 (14)와 같은 환경에서 '여>에'의 변화를 보여주니, 여기에서 '어>여'의 변화는 상당히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14)에서의 '어>여'의 변화는 모두 양순음 아래라는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전승(2009: 334-340)에서는 (14)와 같은 '어>여'에 대해 'C+yə>C+e'와 같은 단모음화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교정으로 형성된 것이며 여기에 움라우트 현상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4)는 움라우

21) 이들을 오기인가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경셩유록』에는 그것을 오기된 것들은 다시 수정한 흔적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오기되었다면 수정되었을 것이다. 이들 어휘의 표기에는 수정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13)의 예들을 오기로 보지 않는다.

트 환경과 관련이 없어 움라우트 현상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과도교정은 주도적인 음운 변화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여' 변화를 '여>어'의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어'가 주도적인 변화 과정이어야 한다(이래호 2022: 69 참조). 하지만 앞의 (13)에서 '여>어'의 변화는 상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로, 주도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어>여' 변화를 과도교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양순음 다음에서 'y'가 첨가되는 현상은 비단 양순음 다음의 '어'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음 예를 통해 좀 더 다양한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15) 가. 샹ᄒᆞ 인민니 모도 <u>뇨</u>혀 토샹ᄒᆞ더라<51a>
나. 오빅연 죵사가 금일의 멸<u>먕</u>ᄒᆞᆫ니<49b>
다. 지금은 <u>현</u>병 파견소가 되여<4a>, <u>현</u>병 파견소라<7b>/<8a>, 그곳에도 <u>현</u>병 파견소가 잇더라<10b>

(15가)는 '오>요'의 변화를, (15나)는 '아>야'의 변화를, (15다)는 '어>여'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를 환경과 관련하여 구분하면 (15가)와 (15나)는 양순음 아래에서의 변화이고 (15다)는 후음 아래에서의 변화이다. 곧 단모음에 'y'가 첨가되는 현상은 '어'뿐만 아니라 '오', '아'의 환경에서도 나타나며 양순음뿐만 아니라 후음 아래에서 y가 첨가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y 첨가는 양순음과 다양한 단모음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주도적인 방향이었고, 후음이라는 환경까지 확대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3)은 (14), (15)과 같은 주도적인 음운 변화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어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단모음화와 이중모음화를 통해 1910년 전후 강릉 방언에서는 양순음 아래에서 '여>에'의 제한적 변화와 함께 양순음 아래의 '어, 아, 오'와 후음 아래에서 '어'에 y가 첨가되는 변화 두 가지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후대로 올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후자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22)]

5.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어간 말음의 모음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중부 방언에서는 어간 말음이 '오'일 때를 제외하고는 어미가 '어'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강릉방언에서는 어간 말음의 모음이라는 조건과 함께 어간말 자음의 유무에 따라 모음조화의 양상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익섭(1981)에서 어간 말음이 '아, 오'일 경우 그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대부분의 경우 연결어미 '-어'를 취하며 종결어미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아'를 취한다고 하였다. 김봉국(2001)에서는 강릉 방언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일 때는 '-어'를,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후음으로 끝나는 어간일 때는 어간말 모음이 '아, 오'이면 '-아'를 취하고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우'이면 '-어'를 취한다고 하였다.

『경셩유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보이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16) 즘간 안져<6b>, 집을 ᄎᆞ져 드니<7a>, 즁간으로 길을 ᄯᅡᆨ거<9b>, 화륜거ᄂᆞᆫ 번기갓치 다러나고<13a>, 임군게셔 안져<18a>, 돌을 … ᄭᅳ러씨니<20b>, 다러나던 거동을<23b>, 비발도 만어질 ᄲᅮᆫ 아니라<31b>, 일병니 무한니 와셔 잡어 결박ᄒᆞᆫ니<48b>, 살어 씰ᄃᆡ

22) 현대의 강릉 방언에서 양순음이나 후음 아래에서 반모음 y가 첨가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없다 ᄒᆞ고<52a>, 긔운을 쏫쳐 놀어 올너갈 ᄉᆡ<54a>

(17) 가. ᄉᆞ관에 도러와셔<14b>, 도러보니<19b>, 어언간 셕양쳔이라 ᄉᆞ관으로 도러오다 <22a>, ᄉᆞ관에 도러오다<25b>

나. 편지 써셔 나구□(써)졍 몰여 보ᄂᆡ니<17b>

(18) 가. 밧도 조허 빅곡이 무셩ᄒᆞ고<7b~8a>, 놀기 조허 술기 조혜 <15b>, 다리을 노어<29a>,

나. 셔울 술기 가장 조혜<15b>, 놀기 조허 술기 조혜<15b>

(19) 가. 숨빅오십 이가 남엇도다<7a>. 타락ᄉᆞ 목멱ᄉᆞ은 동남에 놉펏구나<19b>[23], 동식물원 될 쥴 누가 알렷시리오<22a>, ᄒᆞ놀에 다엇던니<53b>

(16)~(19)는 모두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16)은 어간말 모음이 '아/ㅇ'인 경우이며, (17)은 어간말 모음이 '오'인 경우이다. (18)은 어간이 후음 'ㅎ'으로 끝나며 어간말 모음이 '오'인 경우이다. (19)는 어간의 모음이 '아', '오'에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18나)의 '조혜'는 '좋-'에 하게체 정도의 종결어미 '-에'로 분석할 수 있는데, 종결어미도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예를 통해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 '-어(-)'가 결합한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도 보인다.

(20) 가. 옥황니 흔연 친ᄋᆡᄒᆞ샤 샹소을 바다 보신니<54a>

나. 정부의 명령을 바다 왓실 ᄲᅮᆫ더러<42a>

다. ᄂᆡ집 숩아 편이 쉬자 ᄒᆞ엿더니<13b>

라. 넷지 딕을 ᄎᆞᄌᆞ 드니 반갑고 반갑다고<34a>

---

23) 지역에 따라서는 '높-'이 '노푸-'와 같이 '우' 불규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셩유록』에서는 '놉고'<4b>, <12a>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형을 '높-'으로 보았다.

(20) 역시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이고, 어간말 모음이 '아/ᄋᆞ'인 경우이다. 그런데 (20)에서는 모두 어미 '-아(ᄋᆞ)'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곧, 1910년 전후의 강릉 방언에서는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모음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로 모음 '-어X'가 결합하며 소수의 반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21) 가. 정황 듯고 보아도 조흔 곳은 아니로다.<34b>

나. 비가 와도 지지 안코<20b>, 도라 나와 살펴보니<22a>, 심복 츙신왕 보와 조루와 주충네 장수의 소ᄉᆞᆼ을 보니<23b>

다. 안구ᄉᆞᆫ 셩황당이에 가셔<2b> 구천지ᄒᆞ에 가도 즐거워 홀릿라<49b>, 항구에 나가 보니<29a>

(22) 가. 분명ᄒᆞ게 보어도 형언ᄒᆞ여 야기ᄒᆞ기 어렵도다<20b>, 눈으로 보어 알기만 ᄒᆞ고<16b>, 다시 보어도 어히업셔 말 못ᄒᆞ깃더라.<24b>

나. ᄯᅩ한 목을 믜여 쥭은니<51a>

다. 지금은 평충쌍이 되엇더라<5a>, 녀편닉 되여<32a>

(21가)는 개음절에서 어간 말음이 '오'일 때 '-아X'가 결합한 예이고, (21나)는 '오'로 끝나는 어간에 '-아X'가 결합하여 '와'로 w 활음화된 예이다. (21다)는 '아'로 끝나는 어간에 '-아X'가 결합하여 모음 '아'가 탈락된 예이다. 반면에 (22가)는 어간 말음이 '오'일 때 '-어X'가 결합한 예이고, (22나)는 'ㅢ'로 끝나는 어간에 '-어'가 결합한 예이며, (22다)는 'ㅚ'로 끝나는 어간에 '-어X'가 결합한 예이다. 곧 어간 말음이 '오'일 때 '-아X', '-어X'가 모두 결합할 수 있고, 어간 말음이 '아'일 때는 '-아X'만, 어간 말음이 'ㅢ', 'ㅚ'일 때는 '-어X'만 결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간

말음이 ‘오’일 때는 일정한 경향성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현대 강릉방언과 차이점이다.

한편, ‘으’ 탈락이나 ‘르’ 불규칙을 보이는 용언에서의 모음조화 양상은 특징적이다.

(23) 가. 소식 몰라<10b>, 역적인 쥴 몰나도<47a>, 디관령에 올라 셔니<35a>, 송송봉에 올나 셔니<3a>, 남디문 닉달나 셔양 ᄉᆞ람 제즁원에 가셔<23a>, 마루 쥬막 다달나 좀간 쉬여<3a>,

나. 동포가 무어신지 몰넛실 터인디<32b>, 최승층에 올너 외과부에셔 진찰ᄒᆞ고<22b>, 셔울 풍속 ᄯᆞᆯ너라고<15b>, 연아을 ᄯᆞ라러<35a>

(24) 다리 압허 못 견들 것 갓트나<6b>, 황아짐은 ᄯᆡᆫ을 모어 추립ᄒᆞ고<13a>, 청연 녀ᄌᆞ 모어 드려<17b>

(25) 르-불규칙 동사와 ‘으’탈락 용언의 모음조화 양상

구분		-어	-아
르불규칙	오르다	5	12
	모르다	2	1
	ᄯᆞ르다	2	0
	다다르다	0	3
	ᄂᆡ다르다	0	2
	계	9(33.3%)	18(66.7%)
으탈락	아프다	1	0
	모으다	2	0
	계	3(100%)	0(0%)

(23)은 르-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이 (23가)에서는 ‘-아’를 (23나)에서는 어미 ‘-어’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인 것이다. (24)는 으-탈락 용언들이 ‘-어’를 취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25)는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경셩유록』에 나타나는 르-불규칙 용언들과 으-

탈락 용언들의 어미 '-어', '-아'를 취하는 분포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르-불규칙 용언들 가운데 '오르-'와 '모르-'는 같은 어휘에서도 '-어'와 '-아'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머지 용언들은 '-아'나 '-어'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르-불규칙 용언들이 '-아'를 취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특정 어휘에서 '-아'를 취하는 비율이 높은 까닭이다. '으' 탈락 용언들은 모두 '-어'만을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봉국(2001: 87-90)에 따르면 현대 강릉방언에서 르-불규칙 용언의 경우 종결어미이면 '-아'를 취하고 그 외에는 모두 '-어'를 취하며[24], 으/우-불규칙 활용에서는 어미 '-어'를 취한다고 하였다. 이는 『경셩유록』에 나타나는 강릉방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경셩유록』에서 르-불규칙 용언에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예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종결어미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면, 1910년 전후 으-탈락 용언의 모음조화 양상은 현대 강릉방언과 동일하지만, 르-불규칙 용언에서의 모음조화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대로 오면서 '-어'쪽을 취하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1906년부터 1913년 말 사이에 작성된 『경셩유록』에 나타나는 전설모음화, 고모음화, 저모음화, 단모음화와 이중모음화, 모음조화, '애'와 '에'의 변별을 통해 당시 강릉 방언 모음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 강릉 방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셩유록』은 강릉김씨가 1913년 9월 이후에 쓴 <서유록>과 강릉

24) 김봉국(2001: 88)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어미 '-어/-아(X)' 앞에서 교체되는 어간이 개음절 어간인 'X르-'가 아니고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X^{ㄹㄹ}-'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였다.

김씨 아들이 1906년 1월 정도에 쓴 「황셩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1910년 전후, 곧 1906년부터 1913년 말 사이의 강릉 방언이 반영되어 있다.

2) 『경셩유록』 당시 강릉 방언에 나타나는 전설모음화는 '으>이', 움라우트에 의한 '어, 아, 오 > 에, 이/애, 외'의 전설 모음화, 움라우트와 관련이 없는 전설모음화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전설모음화는 움라우트와 관련이 없는 전설모음화이다. 당시 움라우트가 활발하지 않았고 제한적 조건에서 나타났다는 점은 현대 강릉방언과 차이가 있다.

3) 당시 '어>으'와 '에>이' 고모음화는 장음이나 단음의 모음에서 모두 일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오>우' 고모음화는 문법 형태소에서 나타난 점에서 현대 강릉 방언과 차이가 있다.

4) '으>어' 저모음화는 당시 강릉 방언에서 치경음에서 주로 나타나고 연구개음에서도 드물게 나타났는데, 현대 강릉 방언에서는 주로 2음절 이상에서 치경음 뒤에서 나타나 '으>어' 저모음화 환경의 변화를 보인다.

5) 당시 강릉방언에서는 양순음 아래에서 '여>에' 단모음화와 양순음과 후음 아래에서의 단모음에 y가 첨가되는 이중모음화가 존재하였다. 전자는 후대로 올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후자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6) 모음조화는 당시 강릉방언에서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모음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로 모음 '-어X'가 결합하며 소수의 반례가 존재하였으며, 어간이 말음의 모음이 '오'일 때 '-아X', '-어X'가 모두, '아'일 때는 '-아X'만, '이', '외'일 때는 '-어X'만 결합할 수 있었다. 르-불규칙 용언들은 '-어'와 '-아'가 결합하며, 으-탈락 용언들은 '-어'가 결합할 수 있었다. 현대 강릉 방언이 현대 강릉방언에서 르-불규칙 용언의 경우 종결어미이면 '-아'를 취하고 그 외에는 모두 '-어'를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59-91쪽.

김경미(2017), 20세기 초 강릉 김씨 부인의 여행기 <경성유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441-464쪽.

김봉국(2001), 강릉·삼척 지역어 '-어/-아'계 어미의 교체와 음운현상." 어문연구 29-2, 71-92쪽.

_____(2012), 『셔유록』에 나타난 강릉 지역어의 특징, 우리말연구 30, 우리말연구학회 197-210쪽.

김옥영(2012), 강릉방언 모음 실현의 특징과 원리, 방언학 15, 한국방언학회, 5-46쪽.

김완진(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63-99쪽.

김유겸(2020), 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변화의 진행과 방향에 대하여,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09-433쪽.

김인기(2004), 강릉방언총람, 한림출판사.

박미현(2008), 강원여성사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성종·전혜숙(2009), 강릉방언사전, 태학사.

배영환(2019), 영동 송병필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19세기 충북방언-모음 음운론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5-201쪽.

백두현(2000) 현풍곽씨언간의 음운사적 연구, 국어사연구 1, 국어사학회, 97-130쪽.

소신애(2016), 움라우트의 개재자음에 관한 재고찰-중부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37-272쪽.

유소연(2017) '어→으' 고모음화의 발생에 대하여-송병필가 언간과 여소학언해를 중심으로-, 국어학 85, 국어학회, 333-367쪽.

이래호(2022), 19세기 말 20세기 초 밀양 방언 모음의 음운론적 특징, 영주어문 51, 57-79쪽.

이익섭(1972), 강릉 방언의 형태음운론적 고찰, 진단학회 34, 진단학회, 97-119쪽.

_____(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 - 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익섭(2004), 강릉방언의 성립과 그 특징, 강릉학보 창간호, 강릉학회, 59-66쪽.

정원수(1993) 영동 방언의 음운론, 언어연구 9-1, 한국현대언어학회, 175-201쪽.

최명옥(1974), 경남 삼천포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32, 국어연구회, 1-108쪽.

_____(1990) 19세기 후기국어의 연구: <모음음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55-90쪽.

최전승(2009), 19세기 후기 국어방언에서 진행 중인 음성변화와 과도교정(hypercorrection)의 개입에 대한 일 고찰, 국어문학 46, 국어문학회, 5-67쪽.

<Abstract>

Th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Vowels of Gangneung Dialect in *"Gyeongsyeongyurok"*

Lee, Rae-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owel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Gangneung dialect at the time through the *"Gyeongshengyurok"* written around 1910,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from the modern Gangneung dialect. *"Gyeongsyeongyurok"* is a manuscript consisting of *"Syeoyurok"* written after September 1913 by Gangneung Kim who lived in Gangneung and *"Hwangsyeong Sinmun"* written by Gangneung Kim's son in January 1906, and is suitable for examining the language of Gangneung at that time. In order to examine the dialect of Gangneung at that time, front-vowelization, high-vowelization, low-vowelization, monophthongization, diphthongization, and vowel harmony were studied. Front-vowelization of 'ɨ>i' that were not related to Umlaut, high-vowelization of 'ə>ɨ', 'e>i', and low-vowelization of 'ɨ>ə' under alveolars are no different from the modern Gangneung dialect. However vowel harmony, the high-vowelization of 'o>u', monophthongization and diphthongization differ from modern Gangneung dialect.

Key words : *Gyeongshengyurok*, Gangneung Dialect, Vowel,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이 논문은 2023년 7월 19일에 접수되어 2023년 8월 8일에 심사 완료되고 2023년 8월 1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